효원인은 **고전**을 즐겨 읽는다

책 읽는 대학, 책 읽는 효원인

너와 나의 고전읽기

독후감 공모

부산대학교도서관은 '부산대학교 선정 고전 99선' 읽기에 효원인들이 함께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기 위한 '독후감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책을 읽는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하세요.

공모 내용

응모 자격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독후감 공모 대상 도서
부산대학교 선정 고전 99선 중 「금오신화」 등 41선
(참고도서 : 「고전의 힘」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엮음, 꿈결, 2013)
※대상 도서 리스트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를 참조하세요.

제출 양식
- 분량 : A4용지 4매 이상 10매 이하(표지 제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독후감응모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

독후감 접수
2013년 5월 1일 ~ 7월 8일

입상자 발표
2013년 8월 5일(월) ※심사 일정에 따라 입상자 발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상식
미정(8월 중 실시)

시상 내용

시상 혼격
부산대학교총장 표창장 –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3명(10만원)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제출 방법

방문 제출 도서관 기획전산팀(제1도서관 3층)
e-mail 제출 hjchang@pusan.ac.kr

유의 사항
- 응모작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당선 후 표절 혹은 본인의 작품이 아닌 경우 시상 취소 및 이후 응모 자격 박탈
- 1인당 1점 이상 출품 가능하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시상은 없음
- 작품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독후감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응모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도서관에 귀속

※응모관련 문의 : **도서관 기획전산팀(051-510-1309, 1810)**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전산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
http://pulip.pusan.ac.kr

제26호 2013년 4월 18일

효원 iN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똑똑, 문을 열다

제2도서관
오는 6월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제2도서관은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6쪽)

제26호 2013년 4월 18일

효원 iN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CONTENTS

04 **칼럼**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으라
06 **특집** 제2도서관 리모델링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내 손안의 작은 도서관을 만나다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취업 앞에 머뭇거리는 당신을 위해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효원인이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
14 **시선집중**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제환 **발행일** 2013. 4. 18.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510-1800 | http://pulip.pusan.ac.kr
편집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전산팀 | 051-510-1810 | library@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효원in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원in도서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도서관 블로그(http://pnulib.tistory.com)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으라

구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잣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런 길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찾는
주안점이 다를 뿐이다.
모두에게 구가 있지만
그 출발점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구할만한 책을 읽으라니? 돈 되는 책을 읽어야지 무슨 세상물정 모르는 케케묵은 소리냐고 타박할는지 모른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자식을 향해 던진 애절한 호소였다. 다산은 마흔 살 한창 뜻을 펼칠 나이에 귀양을 떠나 18년을 유배지에서 살았다. 공자가 사람이 궁하게 되면 분수를 잃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 버리기 쉽다[窮斯濫]고 했지만, 다산은 현실적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학문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만한 저서를 남겼다. 후학의 입장에서는 귀양살이로 책을 읽고 지을 절대시간을 확보했던 것이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유배지의 다산에게 자식은 참으로 애틋했다. 그는 자식들이 벼슬길이 막혔다고 참사람[聖人]되는 공부를 소홀히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 편지글 가운데 "실학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얄팍한 이기심과 남을 이기는 경쟁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치는 오늘날 한국교육에 비춰본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다산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한국사람은 서구의 평가에 더 솔깃하므로 그들의 입을 빌어보자. 다산 탄생 250주년이었던 2012년 유네스코는 루소·헷세와 함께 다산을 세계기념인물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에 다산을 '유학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기반을 둔 이론을 펼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거기에 한국유네스코 위원회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한국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서양 근대 철학을 주로 가르친다. 다산철학에 대한 학술행사와 교육 장려가 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따끔한 지적이었다.

다산이 강조했던 '실학'과 '참다운 독서'는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이었을까? 다산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시대를 살았다. 경제적 피폐와 정치적 혼란은 물론 조선사회의 근간이었던 신분제마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이념성을 공고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실학]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주자학적 이념성에 매몰되기보다는 유학의 본래정신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洙泗之學을 강조하였다. 수사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니, 수사지학은 곧 공맹유학의 본래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공자가 인의 실현을 통해 춘추시대의 사회적 환란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다산은 수사지학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당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다.

다산이 말한 참다운 독서는 爲己之學을 하기 위함이었다. 즉 공부는 과거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기 위함이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爲人之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참다운 독서와 공부란 사람다운 사람[仁人]이 되어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구제할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목민심서』 서문에서 군자의 학문은 修身이 반이고 牧民이 나머지 반이라고 하였다. 다산이 수신과 함께 목민을 강조한 것은 참다운 사람이 되는 공부[위기지학]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회적으로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학문적 지향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다산이 말한 사람다운 사람[仁人]이란 어떤 사람인가? 유학에서 인인이란 모든 사람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혈구지도(絜矩之道)를 전제한다. 구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잣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런 길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찾는 주안점이 다를 뿐이다. 모두에게 구가 있지만 그 출발점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학문은 위기지학이어야 했다. 내 삶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할지 말지가 분명히 밝아져야만, 그것을 준거로 삼아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다산은 인을 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파악하였는데, 성리학자들처럼 내면적 수양을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산은 인을 효제자(孝悌慈)라는 구체적 덕목으로 풀이하였다. 특히 자효가 자애로운 부모와 효성스런 자식이란 가족적 덕목으로서 대비적이기도 하지만, 자는 치자와 백성 사이의 덕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인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덕목임을 강조하였다.

공자와 다산이 강조했던 인은 '지금·여기·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대학의 실정을 예로 들어보자. 교수들은 연구업적 쌓는 일에 매몰되어 정작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과 훌륭한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데는 소홀하다. 학생 역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스펙쌓기와 좋은 성적을 획득하는데 정신 팔려 정작 학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학사회는 '학문으로 세상을 구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참나[聖人, 仁人]'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내가 만난 다산은 참 멋진 이다.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라!

위 편지글 말미에 다산은 다음과 같이 일침을 덧붙였다. "최근 우리 문학을 아주 배척하는 풍조가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눈도 주지 않으려 하니 이거야말로 병통이 아니고 무엇이랴? 사대부 자제들이 우리나라의 옛일들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의론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고 있다 해도 그저 엉터리가 될 뿐이다." 선인들의 책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자본의 횡포와 경쟁신화가 삶을 피폐하게 하는 지점을 묵묵히 성찰해 볼 일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자리에 온전히 서야만, 자본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 아닌가. 모두가 제자리에 서야[各得其所] 제대로 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제2도서관 리모델링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 예고

제2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980년대 지어진 제2도서관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의 냉난방 설비시설, 내·외부 마감재 노후 등으로 전반적인 열효율 개선과 층간, 층별 공간 재배치를 통한 열람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제2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도서관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한 열람환경 개선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크게 변화 될 전망이다.

제2도서관, 이렇게 달라진다!

1층 정보서비스 공간 창출

- 제1도서관에 위치하고 있는 취업지원자료의 이전 확대
-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iCOMMONS 설치
- 이용교육, 영화상영 등이 가능한 다목적 오디토리움 설치
-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노트북 열람실 설치

현재 | 리모델링에 따른 층간 공간 재조정 |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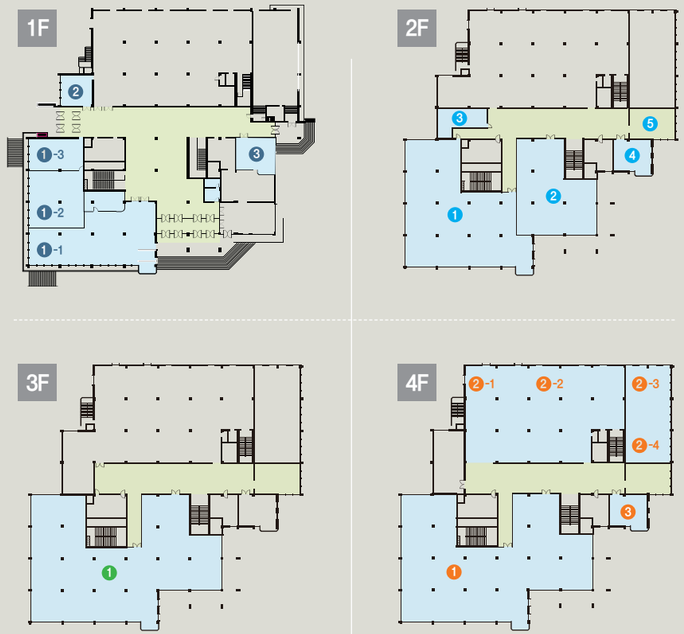
4F
- 현재: ●제6~7열람실/제3캐럴실(박사과정)/한국민족문화연구소 ●보존서고 ●제본실
- 변경 후: ❶ 제3열람실 ❷ -1 대학원열람실 ❷ -2 제2노트북열람실 ❷ -3 제2캐럴실(박사과정) ❷ -4 스터디룸 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F
- 현재: ●제4~5열람실 ●대학원열람실
- 변경 후: ❶ 제2열람실

2F
- 현재: ●제2열람실 ●제3열람실(노트북)/제1캐럴실(박사과정) ●제2캐럴실(박사과정) ●보존서고
- 변경 후: ❶ 제1열람실 ❷ 노트북열람실 ❸ 제1캐럴실(박사과정) ❹ 도서관자치위원회 ❺ 락커룸

1F
- 현재: ●제1열람실 ●보존서고 보관실 ●스터디룸
- 변경 후: ❶ -1 iCOMMONS ❶ -2 취업지원자료센터 ❶ -3 오디토리움 ❷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 ❸ 제본실

한 눈에 살펴보는 제2도서관!



도서관에서는 공사 시작 전까지 공간 재배치를 위한 보존서고 내 장서이동, 사물함 철거, 열람대 이동 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물함 철거 시 개인물품은 도서관 공지기간 내 반드시 본인이 수거하는 등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공사기간 중 휴관하는 열람실 대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도서관에서는 각 단과대학 및 학생처와 협의 중이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갈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함께 그리며, 새롭게 단장한 제2도서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공간배치도는 향후 추진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세 번째 만남, **대출열람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무료로 빌리는 장소가 아니다.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어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세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함께 호흡하고, 상호 교류하는 일상의 생활공간으로 도서관이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서들의 숨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 세 번째 만남. 대출열람팀과 함께한다.

대출열람팀! '책'과 '사람'을 잇다

01 대출열람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대출열람팀은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입니다. 제1도서관, 제2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도서관회원제 관리, iCOMMONS 운영,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열람실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0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자료의 대출·반납이 주업무이며 캠퍼스간자료대출, 예약도서 관리, 교수와 장애학우를 위한 대출자료배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제1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출입방법, 자료이용 방법, 자료소장위치 문의 등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과 일반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위해 도서관 회원증, 출입증을 발급·관리하는 도서관회원제도 운영합니다.

제1도서관 1층에 위치한 iCOMMONS는 500여대의 PC와 다양한 기자재를 비치하여 정보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어학실습실, 미디어감상실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협정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타기관자료이용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출판된 자료,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는 제2도서관 보존서고에 소장하고 있으며, 폐가제로 운영합니다. 보존서고 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대출신청을 하고 제2도서관 1층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책을 찾아줍니다. 제2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 이용안내, 신문 열람관리 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자치위원회와 협조하여 일반열람실 및 스터디룸, 박사과정 캐럴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03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서관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큰소리로 대화를 한다든지, 음식물을 들고 도서관에 출입한다든지, 도서관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감쪽같이 절취해간다든지, 무분별하게 낙서를 한다든지..... 도서관은 공공의 장소이며, 도서관 장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도서관 자료와 시설은 현재의 우리는 물론 미래의 후배들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니 소중히 다루어 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서관 이용문화를 위해, 효원인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서관 에티켓은 꼭 지켜주세요!

대출·반납 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대출 책수 및 기간

- **학부생**
  10책 이내 10일
- **대학원생 ·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20책 이내 30일
- **명예교수 · 시간강사 · 조교 · 직원 등**
  20책 이내 60일
- **교수**
  50책 이내 90일

대출한 자료를 기간 내 반납하지 못할 경우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 부과, 대출·연장·예약서비스 이용불가, 제증명서 발급 정지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 변상(정리비 800원 부과)
절판된 자료는 유사주제의 최신자료 변상
(정리비 4,000원 부과)

도서관 자료실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반납은 입구에 설치된 자동반납기 이용

내 손안의 작은 도서관을 만나다

- 스마트폰으로 e-Book 이용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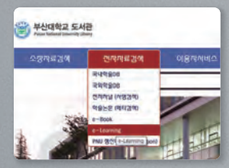
따뜻한 봄기운이 책과의 대화를 재촉합니다.
내 손 안에 여러 권의 책을 쏙 담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보고 싶으신가요?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e-Book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자책(e-Book) 이란?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책이 아닌, 컴퓨터나 PDA, 휴대폰 등 단말기를 통해 볼 수 있게 디지털로 가공된 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양 습득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e-Book을 구매·구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보문고 / YES24 전자책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PC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접속
1. 전자자료 검색 > e-Book
2. 교보문고 / YES24 전자책 클릭



스마트폰 이용방법

| YES24 |

- 어플리케이션 설치
- PC에서 YES24 전자책 홈페이지 로그인
  (최초 이용 시 / 비밀번호 변경 시 반드시 PC에서 로그인 필요)

1. YES24 전자도서관 실행 후 리스트 중 '부산대학교도서관' 접속
2. 도서관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3. 도서관 페이지에서 도서 대출 후 책장으로 이동하여 파일 다운로드
4. 내서재에서 도서이용, 대출기간 종료 후 자동반납

| 교보문고 |

- 어플리케이션 설치
- PC에서 교보문고 전자책 홈페이지 로그인
  (최초 이용 시 / 비밀번호 변경 시 반드시 PC에서 로그인 필요)

1.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부산대학교' 검색 > 등록 후 로그인
2. 도서관 페이지에서 도서 검색
3. 도서 대출 후 다운로드 > Library 페이지에서 도서이용 후 반납

문의 | 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32**

취업 앞에 머뭇거리는 당신을 위해

- 취업지원자료 코너 활용하기 -

취업준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 도서관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취업과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료부터 채용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까지, 도서관 '취업지원자료 코너'를 활용하세요!

우리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최적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도서관 2층 내 취업지원자료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취업지원자료 코너에는 공무원시험, 어학, 전산 등 취업과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료 15,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취업지원자료 선정방법은 ☑부산대학교 수준에 맞는 자격증 ☑기업별 시험 및 적성검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유학, 대학원 입학 시험관련 서적 등을 기본으로 하며, 학생들의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서도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수시로 구입되는 취업지원자료는 개정판이나 신판이 입수되면 구판 등은 색출하여 제2도서관 보존서고로 배치하고 있다.

취업지원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를 통해 소장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많은 학생들의 이용을 위해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 취업정보를 한눈에! **취업지원보드**

취업지원보드는 각종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풀 터치 스크린 시스템 (Full Touch Screen System)으로 GIFT(Education Center for Green Industry-friendly Fusion Technology, 기계기반융합부품소재인재양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종류별/지역별 채용정보, 취업정보(공모전, 어학시험정보, 진로/면접 가이드 등), 창업정보, 각종 공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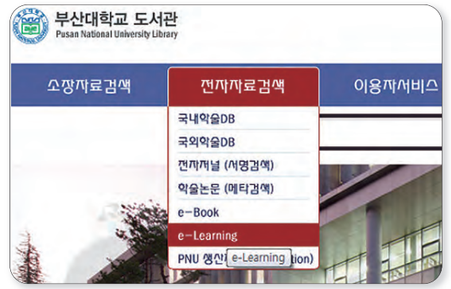
위치
- 제1도서관 2층 취업지원자료 코너
- 제2도서관 1층 로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취업정보를! **취업정보게시판**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내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게시판에는 미래인재개발원과 협조하여 매주 채용설명회 및 상담일정을 게시하고 있으며, 학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책만 본다? 온라인 동영상 강좌까지! **e-Learning 서비스**

취업지원을 위해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동영상 강좌 및 어학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 직종별 7~9급,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을 대비한 '공무원시험 동영상 강좌'가 있으며, 어학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로제타스톤(Rosetta Stone)'과 '오토잉글리쉬(Auto English)'를 제공하고 있다. '로제타스톤(Rosetta Stone)'은 1:1 화상강의로 진행되며, '오토잉글리쉬(Auto English)'는 모바일 전용으로 107여종의 어학을 습득할 수 있다.



로제타스톤(Rosetta Stone)

Online Version
▶ **이용안내**
부산대학교도서관(http://pulip.pusan.ac.kr) > 로그인 > 전자자료검색 > e-Learning > 로제타스톤
▶ **제공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이용방법** : ID/PW 인증

CD Version
▶ **이용장소** : 제1도서관 1층 iCOMMONS 내 이용교육실
▶ **제공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유학생을 위함)

오토잉글리쉬(Auto English)

▶ **이용안내**
부산대학교도서관(http://pulip.pusan.ac.kr) > 로그인 > 전자자료검색 > e-Learning > 오토잉글리쉬
▶ **제공언어** : 영어(회화, 토익, 토플, 텝스),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107여종
▶ **모바일 전용** : 어학학습용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 이용
▶ 앱스토어 또는 Play 스토어에서 'AE앱 도서관' 어플 설치

※ 현재 1도서관 2층에 위치한 취업지원자료는 제2도서관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확대 이전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자료 코너 관련 문의 051-510-1862

효원인, 책으로 通하다

'효원인이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98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내 인생의 책 한 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모든 효원인을 대상으로 **'효원인이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공모하여, 우수 추천서 10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효원인 추천도서 및 우수추천서 원본은 부산대학교도서관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통해 친구, 선후배간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효원인이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98선을 소개합니다.

총류

기계의 아름다움	데이비드 갤런터 | 해냄 | 1999
대담 :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	도정일 | 휴머니스트 | 2005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1,2	이지성&정회일 | 다산라이프 | 2011

철학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최인철 | 21세기북스 | 2007
10대가 아프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 위즈덤경향 | 2012
그래도 계속 가라	조셉 M. 마셜 | 조화로운삶 | 2008
꿀벌의 우화	버나드 맨더빌 | 문예 | 2010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이무석 | 비전과리더십 | 2011
내가 나일 때 가장 빛난다	한홍구 | 철수와영희 | 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 와이즈베리 | 201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 쌤앤파커스 | 2012
무조건 행복할 것	그레첸 루빈 | 21세기북스 | 2010
바보의 벽	요로 다케시 | 재인 | 2003
버킷리스트	강창균 | 한국경제신문 | 2011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 문예출판사 | 2006
생명의료윤리	구영모 | 동녘 | 2010
세월이 젊음에게	구본형 | 청림출판 | 2008
열혈청춘	강경란 | 한겨레출판 | 2011
윤리학의 배신	콰메 앤터니 애피아 | 바이북스 | 2011
짜라투스트라 : 춤추는 신 1, 2, 3	오쇼 라즈니쉬 | 시간과공간사 | 1995
카네기 행복론	데일카네기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05

사회과학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앨빈 토플러 | 청림 | 2012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김연명 | 두리미디어 | 2011
마오의 제국	필립 판 | 말글빛냄 | 2008
마지막에 결혼하는 여자가 이긴다	섀넌폭스 & 셀레스트리버시지 | 21세기북스 | 2012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봄 | 세종서적 | 2002
손자병법	손무 | 글항아리 | 2011
슬픈 칼라하리	엘리자베스 M. 토마스 | 홍익 | 2007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8.0 | 2011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중앙북스 | 2007
자발적 복종	에티엔느 드 라 보에티 | 울력 | 2004
직업으로서의 학문	막스 베버 | 나남 | 2006
처음 읽는 여성의 역사	정현백 | 동녘 | 2011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	에린 그루웰 | 랜덤하우스 | 2007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정대영 | 한울 | 2011

자연과학

직관수학	하타무라 요타로 | 서울문화사 | 2005
통계의 미학	최제호 | 동아시아 | 2007

응용과학

1日 1食	나구모 요시노리 | 위즈덤스타일 | 2012
20대, 공부에 미쳐라	나카지마 다카시 | 랜덤하우스 | 2008
26살 도전의 증거	야마구치 에리코 | 글담 | 2009
고승덕의 ABCD 성공법	고승덕 | 개미들출판사 | 2011
벌거벗은 유전자	미샤 앵그리스트 | 과학동아북스 | 2012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 민음사 | 2001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	하워드슐츠 | 김영사 | 2005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 더난 | 2011
우울증이 주는 선물	라라 호노스 웹 | 시그마프레스 | 2012
잘되는 가게의 이유 있는 컬러 마케팅	다카사카 미키 | 이손 | 2004
한의학 탐사 여행	윤영주 | u-북 | 2008

예술

게임, 게이머, 플레이	이상우 | 자음과모음 | 2012
금난새의 클래식 여행	금난새 | 아트북스 | 2012
평행과 역설	에드워드 사이드 | 마티 | 2003
행복의 건축	알랭드 보통 | 청미래 | 2011

문학

그 남자네 집	박완서 | 현대문학 | 2008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오하라 미쓰요 | 북하우스 | 2010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 열린책들 | 2000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황병기 | 풀빛 | 2012
낙타	샹즈라오서 | 황소자리 | 2008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 아름드리미디어 | 2003
다다미 넉장 반 세계일주	모리미 도미히코 | 비채 | 2008
달을 먹다	김진규 | 문학동네 | 2007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 | 행복한책읽기 | 2004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 웅진지식하우스 | 2012
두근 두근 내 인생	김애란 | 창비 | 2011
모르는 여인들	신경숙 | 문학동네 | 2011
모순	양귀자 | 살림 | 1998
미스터 모노레일	김중혁 | 문학동네 | 2011
방문객	콘라드 죄르지 | 시공사 | 2011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 문학동네 | 2004
변성	심종문 | 황소자리 | 2009
보바리 부인	귀스타브 플로베르 | 문예출판사 | 2007
보통의 존재	이석원 | 달 | 2009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김재진 | 시와 | 2012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 문학사상사 | 2010
생각의 좌표	홍세화 | 한겨레출판 | 2009
세상에 너를 소리쳐	박뱅 | 쌤앤파커스 | 2009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랄프 왈도 에머슨 | 씽크뱅크 | 2009
안나 카레니나레프	톨스토이 | 민음사 | 2009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 창비 | 2008
오늘 더 사랑해	션 | 홍성사 | 2008
오래된 정원	황석영 | 창작과비평사 | 2000
의자놀이	공지영 | 휴머니스트 | 2012
이방인	알베르카뮈 | 책세상 | 2006
지구별 여행자	류시화 | 김영사 | 2002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 민음사 | 2011
캐비닛	김언수 | 문학동네 | 2006
퀴르발 남작의 성	최제훈 | 문학과지성사 | 2010
타워	배명훈 | 오멜라스 | 2009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 열린책들 | 2009
허수아비춤	조정래 | 문학의문학 | 2010

역사

(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서양사	남경태 | 그린비 | 2009
근대를 말하다	이덕일 | 역사의아침 | 2012
대항해시대	주경철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8
로마인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 한길사 | 2007
마르탱 게르의 귀향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 지식의 풍경 | 2000
승정원 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	박홍갑 | 산처럼 | 2009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	루츠 판 다이크 | 웅진씽크빅 | 2005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 | 실천문학사 | 2005
실크로드를 건너 히말라야를 넘다	김찬삼 | 디자인하우스 | 1998

※ 듀이십진분류법(DDC)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습니다.

2013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2013년 1학기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11일 제1도서관 3층 북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열녀의 탄생 : 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돌베개, 2009)의 저자 강명관(한문학과) 교수가 '열녀의 탄생 :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의 발명'이란 주제로, 현재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와 가부장적 문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가부장제의 뿌리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저작물이 있는 교내 연구진을 초청하여, 저자와 독자가 함께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목록, 9호까지 발간

도서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고민 등에 도움이 되는 책을 수록한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2012년 첫 번째 목록 〈나는 누구인가?〉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아홉 번째 목록 〈우울〉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별 독서목록은 도서관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이용자 서비스 ▶ 독자상담서비스 ▶ 독서치료)나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 (http://reading.pusan.ac.kr)를 통해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주제별 독서목록 |
❶ 나는 누구인가?
❷ 사랑
❸ 흔들리는 20대
❹ 가족, 상처인 동시에 구원!
❺ 부모와의 관계
❻ 감정 돌보기
❼ 자기존중
❽ 마음의 열, 불안
❾ 우울

문의 | 제1도서관 인문사회팀 **051-510-1863**

법학도서관 개관시간 변경 안내

법학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4월 1일부터 도서관 개관시간을 평일(월~금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일 (월 ~ 금)	토요일
법학도서관	학기중	09:00 ~ 21:00	09:00 ~ 13:00
	방학중	09:00 ~ 18:00	

문의 | 법학도서관 **051-510-1582**

감동공유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공모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좋은 책을 친구, 선후배, 동료, 제자와 함께 읽고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건 어떨까? 도서관에서는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이란 주제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동 있게 읽은 책을 추천받는다. 판타지, 만화, 선정적 도서, 무협지 등을 제외한 모든 도서를 추천할 수 있으며,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가능하다.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A4 1장~3장 분량으로 추천도서와 추천글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7월 중 우수추천서에 선정된 50명에게는 도서상품권(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고전자료실 '소눌문고탈초해제집' '국역설외문고간찰' 발간

도서관 고전자료실에서 '소눌문고탈초해제집 Ⅰ·Ⅱ'와 '國譯설외文庫簡札(국역설외문고간찰) Ⅲ'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소눌문고탈초해제 Ⅰ·Ⅱ'에는 조선후기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은 간찰, 제술류, 만사 등 1,401종이 수록돼 있다.

'소눌문고'는 1973년 당시 사범대학 노재찬 교수가 기증한 자료다. 노 교수는 소눌(小訥) 노상직(盧相稷)의 손자다. 노상직은 실학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의 학풍을 이은 학자로서 그의 시문집 '소눌집'은 경학·성리학·예학 등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시(詩), 서(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 이번에 세 번째 발간된 '國譯설외文庫簡札(국역설외문고간찰) Ⅲ'에는 간찰과 토지문서를 비롯한 총 462점의 문서가 수록돼 있다. '설외문고'는 경남 의령군 탐진 안씨 집안에서 대대로 소장해오던 고서와 고문서를 기증받아 설치한 개인문고로,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초서체의 간찰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련분야 연구는 물론 일반인의 역사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제1도서관 고전자료실 **051-510-1824**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PNU 도서관**

"고맙습니다!"

2013년 올해도 도서관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月 부산대 66학번 박현병 씨, 고문헌 436점 기증

1월 4일 박현병(朴炫秉, 부산 남구 용호동, 65세) 씨가 집안 대대로 전해 온 고문헌 436점을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기증자료는 조선중기 학자인 오성부원군 백사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시문집인 백사집(白沙集)과 당나라초기의 대표적 시인인 왕발(王勃, 650~676)의 시(詩)를 한호(韓濩, 석봉 1543~1605)가 쓰고 이것을 목판으로 간행한 등왕각시(滕王閣詩), 조선후기 만들어진 목판 지도책인 천하총도(天下總圖) 등 고서(古書) 160책을 비롯해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등을 내려주는 교지(敎旨)를 포함한 고문서 276점으로, 조선시대의 경제, 과거시험 등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月 밀성박씨 동래문중 송곡재실(松谷齋室), 고문헌 85책 기증

2월 2일 부산시 금정구 서3동의 송곡재실(밀성박씨 회곡공 동래문중(密城朴氏 晦谷公 東萊門中), 회장 박석현)에서 문중 대대로 전해 온 고문헌 85책을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기증 자료는 유교의 경전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의 사서(四書)와 한문교육을 위해 한문 장구(章句)를 한글로 번역한 계몽편언해(啓蒙篇諺解), 편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격식이나 문구를 수록한 한훤차록(寒暄箚錄) 등 85책으로 조선시대 교육 및 생활상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月 부산대 김정권 교수, 행정학 장서 5,000여 권 기증

3월 29일 부산대 음악학과 김정권(36) 교수가 행정학 장서 5,000여 권을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김 교수가 전공과 무관한 행정학 도서 수천 권을 기증하게 된 사연에는 아버지의 자식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김 교수의 아버지는 이화여대 행정학과에서 2004년 퇴직한 김용서(73) 前 교수로, 그간 소장해온 자신의 행정학 관련 일본서, 서양서 등 5,000여 권을 아들인 김정권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부산대에 기증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국립대학인 부산대에서 교수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아들에게 뜻 깊은 일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 교수는 "수십년 교육과 연구의 혼이 담긴 아버지의 책이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로 안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서 前 교수

김정권 교수